

제주 지역신문의 환경보도에 관한 내용분석

- 제민·제주·한라일보를 중심으로 -

박원배* · 김병무**

<차례>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1. 환경의 개념
 - 2. 환경 이슈와 언론보도
 - 3. 지역신문 분석의 의의
- III.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 2. 분석 내용의 조작화
 - 3. 신뢰도 검증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연도별 환경 이슈의 경향
 - 2. 중요 환경 이슈의 연도별 변화
- V.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

환경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생활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는 주로 언론을 통해 환경 관련 정보를 획득한다. 언론은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감시·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지역신문은 보다 지역적인 환경 이슈의 변화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신문을 통해 보도되는 환경 관련 이슈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기 위해 제주 지역 주요일간지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0년간의 환경 관련 기사를 수자원, 자연생태계, 기후·기상, 오염, 개발,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양적으로 정량화하여 상대적 이탈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04년~2005년을 기점으로 각 항목들 간에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사의 양적 빈도가 가장 높았던 수자원은 제주도의 지질학적 특성상 RDI값이 0에 근접하였고, 기후·기상, 자연생태계, 개발 항목은 연도별로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각 항목들의 변화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정책, 사업들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환경, 지역신문, 환경보도, 환경감시기능, 내용분석, 상대적 이탈지수(RDI)

I. 서론

환경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와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도, 자연환경을 개발하는 모든 사업도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한다.

최근 헝가리 독성 슬러지 유출 사건은 전세계적 환경 이슈가 되었고,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환경은 이제 전세계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6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개발정책으로 인해 환경파괴는 사실 뒷전의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의식성장과 환경보호단체,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언론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의견 형성과 태도변화를 일으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환경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정나리, 2007). 그러나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주요 언론기관의 환경 관련 보도는 대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많고, 지역차원에서 환경 관련 이슈를 다룰 경우에도 특정한 사건·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 문제에 치중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경우 지역을 토대로 보다 미시적인 입장에서 지역민들과의 교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신문을 통해 보도되는 환경 관련 이슈에는 무엇이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환경 관련 이슈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주요 일간지들에서 환경 관련 기사를 추출하고 조작화를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제주 지역의 연도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환경 관련 이슈가 중점을 이루고 있는지 분석하고, 아울러 특정의 환경 이슈가 시간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환경의 개념

환경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념과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자연환경, 사회환경, 인문환경 등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다양한 실체들과 주변 배경,

상태들을 지칭하곤 한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개념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환경을 구분해야 한다. 자연은 단독개념이고, 환경은 관계적 개념이다. 관계적 개념에는 주체와 객체가 있다. 환경은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객체로서, 주체에게 영향을 주고, 그 주체는 인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을 환경의 주체로 보고 있다. 인간을 주체로 할 때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인간의 존재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모두 인간의 환경이다(정대연, 2002). 주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환경의 정의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주체로 하였으며, 인간이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주체의 규모를 개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전체 사회를 주체로 설정할 수 있다(정대연, 1997). 본 연구의 환경 개념은 인간을 주체로 설정하였으며, 제주지역사회를 주체의 규모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과 같은 전 지구 규모를 단위로 언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간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문에서 내용분석을 통해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개념 정의를 통해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환경은 추상적일 수 있으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환경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환경 이슈와 환경문제에 접근을 해야 한다.

인간이 환경에 대해 인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오염,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지만, 근래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이 환경 연구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적인 환경오염과 인간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인 환경 이슈가 대체로 많이 등장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것과 전 지구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경문제는 환경오염, 환경파괴, 환경위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연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질의 오염·파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오염·파괴는 엄밀히 말해서 환경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의 오염·파괴가 인간의 건강, 가치체계, 행위양식, 인간관계, 사회변동 등 기존의 삶의 존재양식에 원하지 않는 부정적 영향을 줄 때 비로소 인간에게 환경문제가 된다(정대연, 2002). 최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오염, 위기 등의 문제도 인간의 삶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언급 했듯이, 환경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의 개념은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환경의 주체를 인간으로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환경의 구성요소도 인간을 주체로 하였으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의존관계에 있다(정대연, 2002). 환경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환경의 개념만큼이나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대연(2002)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환경의 가시성과 생성 주체지를 하나의 틀로 통합시켜 환경을 크게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나누고, 인공환경은 다시 물리적 인공환경과 비물리적 인공환경으로 구성하였다. 자연환경, 물리적 인공환경, 비물리적 인공환경은 모두 더 작은 단위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의 단위를 설정하는데 반영하였다.

2. 환경 이슈와 언론보도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는 각종 매체에서 제공하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소비하는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취사선택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은 정보전달자로서의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사회문제에 대해¹⁾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공통의 정보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사실을 제공한다.

뉴스란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에 불과한 게 아니라, 사건의 뉴스 가치 여부가 결국 저널리스트들이 뉴스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뉴스라는 것이다. 맥매너스(J. McManus)에 의하면, 뉴스란 그 생산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의 반영’ 이라기보다 ‘특별한 이해의 집단적 시장수요에 맞추려는 소비재로, 그 자체로 그것은 교묘한 절충’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자들은 우리의 현실과 사상 가운데 일반 대중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을 골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 신문에 보도된 뉴스분 석만으로도 언론의 보도성향과 어떤 사회현상이 주류를 이뤄왔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영철, 2006).

1) 흔히 뉴스는 기자들이 현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통해 뉴스는 현실을 재구성하여 대중의 지각과 인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끄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뉴스가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선택, 강조,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용자의 이해와 해석의 범위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중은 이러한 틀지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균태·송기인, 2005). 또한 환경보도가 대부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단어나 개념을 통해 현상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보도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김재범, 2000)는 2차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오늘날 환경의 접근은 일부분에 국한 된 것이 아닌 국가, 자본, 개인 및 사회 등의 복합적 연결 구조로 발생하게 된다. 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환경의 위기를 야기하며, 동시에 환경산업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는 환경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개발과 보전을 넘나들며,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양한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은 국가와 자본의 통제 속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환경운동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전화수, 2003). 현대 사회에서 환경 이슈는 자본과 국가에 대한 감시와 인식의 확산이라는 측면과 시민사회의 공적·사적 이익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게 된다. 또한 환경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끌면서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한균태, 송기인, 2005).

정보전달자로서 언론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환경감시의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언론의 환경감시의 기능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한 소식이나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여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외부환경과 접촉을 가능케 하고 이에 적응시키는 것이다(전화수, 2003). 또한 환경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 형성과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환경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을 통해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공론의 장(public sphere)’으로서의 기능이다. 언론은 이러한 지속적인 환경보도를 통해 ‘공론의 장’의 기능을 활용하여 환경 관련 이슈를 정치의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정나리, 2007).

이러한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에 대해 슈람(W. Schramm)은 감시자로서의 기능, 정책결정의 기능, 교육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감시자로서의 기능은 환경을 관찰하면서 그 변화를

보고하는 기능이다. 다음으로 정책결정의 기능은 정책을 지도하며 입법화하는데 기여한다. 즉 환경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사회의제를 설정하게 되며 나아가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기능이란 새로운 성원을 사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시자로서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통해서 환경 이슈를 공론화 시키고, 나아가 공론화된 의제를 정책결정 기능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은 필요로 하는 환경 관련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 변화에 대처하고, 문제를 극복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언론의 환경에 대한 감시 기능은 단순히 정보제공, 고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그에 대한 정책적 과제의 해결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능까지를 포함한다(박종수, 1994).

3. 지역신문 분석의 의의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이슈로 구성되는 종합중앙일간지와는 달리 지역신문은 지역의 당면한 현안과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각도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지역신문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지역신문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도태도, 신문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의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다(고영철, 2006). 또한 지역신문은 쟁점 이슈에 대해 지역 정서를 반영하여 해석적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신문의 환경보도 역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역적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지역 정서가 반영된 연구 자료는 거의 없었으며, 지리적 요인만이 반영된 특정 대상지에서 발생한 사건 중심의 전국적 기사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지역신문이 다루는 환경 관련 기사에 대한 연구는 지역 환경 이슈 변화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관련 이슈는 대부분 국가 주도의 사업과 국가적 문제, 세계적 이슈 등과 같이 거시적인 관점과 관련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지역적 차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대응방법이 상이하며, 이를 토대로 한 지역적 환경정책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 환경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실제 발생하는 환경 관련 이슈는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본다.

지역신문의 특성은 지역 관련 뉴스의 ‘근접성’, ‘심층성’, ‘전문성’ 등의 가치에서 접근할 수 있다(김선남 외, 2010). 지역신문의 환경 관련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층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 종합일간지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으로 환경에 대한 심층성, 전문성의 부족은 특정 사건에 대한 스트레이트성 단순보도 성향과 연관된다. 이러한 현상은 종합일간지에 비해 지역신문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지역신문이 지역민에게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시의적인 이슈를 심층적으로 보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신문의 지역 환경 관련 뉴스의 심층성 부족은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환경의 비판적 논평이 부족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신문이 생활정보나 오락지향적인 정보전달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환경 분야 기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영철, 2006).

환경에 대한 신문의 기능, 즉 환경감시의 기능이 보도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제주 지역신문의 환경보도

형태와 제주도민들이 어떤 환경 관련 이슈를 주로 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종합일간신문²⁾ 중에서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3개 일간지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구독하는 신문들이기 때문이다.

연구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주지역은 2000년대에 환경 관련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10년이라는 기간은 사회변동을 확인하는데 의미 있는 기간이고, 최소한 10년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기사는 10년간 매일 3개 일간지에 실린 환경 관련 내용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9,990건의 기사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추출된 기사는 <표 1>과 같다.

2)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한국 지역일간지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제주일보(1945. 10)와 1987년 6.29 선언이후 언론기본법 등의 폐지로, 언론자유시대를 맞이하면서 창간된 한라일보(1989. 4.22)와 제민일보(1990.6.2) 그리고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전환한 제주타임스(2004. 3) 등 4개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다(고영철, 2006).

〈표 1〉 2000년~2009년까지 환경 관련 기사의 빈도

연도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민일보	계
2000	433	512	600	1,545
2001	352	473	484	1,309
2002	476	502	642	1,620
2003	424	364	455	1,243
2004	275	256	263	794
2005	218	177	201	596
2006	303	198	273	774
2007	264	202	251	717
2008	293	217	225	735
2009	279	161	217	657
계	3,317	3,062	3,611	9,990

본 연구는 추출된 9,990건의 환경 관련 기사를 양적으로 정량화 하여 상대적 이탈지수(Relative Deviation Index : RDI)³⁾를 산출하고 내용 분석 하였다.

2. 분석 내용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하나하나의 기사를 분석 단위로 삼았다. 기사는 내용분

3) 상대적 이탈지수(RDI)란 측정치들이 어떤 기준값으로부터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즉, 자료에서 각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정대연, 1997).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해 단순 빈도분석을 사용한다면, 하나의 변수만 고려하게 되지만, RDI는 각 변수들 간의 상호 영향을 반영하여 상대적인 강도를 표현할 수 있으며, 분석 기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 경향(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석 연구방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분석단위로, 본 연구에서는 9,990건의 방대한 기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기사를 각각의 항목에 포함시킬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인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기사 제목의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제목은 그 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을 분류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곽정인, 2008). 둘째, 제목을 기준으로 항목을 분류할 때, 어느 한 항목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거나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을 때에는 기사를 직접 찾아 내용을 확인하여 항목을 분류하였다. 셋째, 하나의 기사 제목에 연구주제의 핵심단어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핵심단어로 항목을 구분하였다. 왜냐하면, 신문의 기고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신문기사의 제목이나 기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차배근 외, 2001). 하지만 오염 항목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기사의 내용이 오염과 관련된 경우에는 오염 항목에 포함 시켰다. 예를 들어, 제주일보 2009년 12월 17일자 4면 기사 “노후 주유소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와 같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모두 다루고 있으나 본 기사는 오염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에 환경의 내용분석 연구에서 분석 항목 선정 내용을 보면, 오강호·고영구(2004)는 제7차 10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인 과학의 ‘환경’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위주로 분석대상 유목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유목은 총 8개로 황사, 산성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 소음,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기타 유목은 해양오염, 토양오염, 중금속 오염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오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용재(2004)는 스웨덴 학자 에머린(Emmelin)의 환경문제 분류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였

으며, 환경문제를 오염문제(대기, 수질, 소음 등), 폐기물·방사선, 자원 관리(천연자원관리 및 보존문제, 인구문제), 사회와 환경(입법규제, 행정, 국제협력, 환경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제 분류에 있어서는 대기, 수질, 자연환경파괴, 국제환경 및 방사능 문제, 공해병·직업병, 환경정책 및 시민운동 등 크게 5가지를 유목으로 선정하였다. 김재범(2000)은 환경문제를 위주로 구분하면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지구 온난화 현상, 오존층 파괴, 기상이변, 열대림 파괴, 생물 종의 감소 등을 언급하였으며, 핵누출, 해양 폐기물 처리, 동물보존과 보호, 에너지 자원의 고갈,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들로 대기오염 문제, 수질오염 문제, 쓰레기 문제 등을 나열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환경 관련 기사의 분석 항목으로는 오염, 수자원, 기후·기상, 자연생태계, 개발 등 5가지를 상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각 항목을 구분하는데, 관련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상위 항목은 다양한 하위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오염’ 항목은 자연의 오염·파괴, 쓰레기, 폐기물, 폐수 등의 기사를 주로 다루었으며,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된 기사는 오염 항목에 포함하였다. 특히, 동일 범주에 있는 4개의 상위 항목에서도 오염과 관련된 기사 일 경우에는 ‘오염’의 범주에 포함 시켰다.

‘수자원’ 항목은 물과 관련된 기사로, 지하수, 상·하수도, 하천, 빗물 등을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기후·기상’ 항목은 제주의 대기 현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날씨, 기상,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재해·재난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된 기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현상에 대한 것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모두 ‘기후·기상’ 부분에 포함하였다. 또한 재해·재난 기사를 본 항목에 포함시킨 이

유는 재해의 많은 부분이 폭우, 가뭄 등의 기상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연생태계’ 항목은 자연 일반을 기사로 다룬 내용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꽃자왈, 동·식물, 오름, 습지, 동굴 등과 함께 지질 관련 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제주의 자연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각종 환경정책을 ‘자연생태계’ 항목으로 분류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 항목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동과 정책을 말하며,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 도시계획,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위 항목으로는 개발, 도시계획, 경관계획, 영향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하위 항목으로서의 개발 항목에는 직접적으로 개발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 사업을 다루고 있는 기사가 하위 개발 항목으로 분류되었고, 케이블카, 골프장, 송악산 개발 사업, 리조트 개발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영향평가 관련 기사는 현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개발을 위한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친환경 농업, 목축업 등의 친환경 관련 사업들과 환경단체 활동, 환경 관련 기관에 대한 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환경 관련 특별법 개정이나 환경의식, 환경교육 등의 의식적 활동을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항목은 환경 관련 기사에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 구분한 오염, 수자원, 기후·기상, 자연생태계, 개발 항목에 포함시키기에는 난해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3. 신뢰도 검증

코딩은 실제 코딩에 앞서 본 연구자와 코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코딩 요원 1인, 총 2인이 사전에 무작위로 추출된 100건의 기사를 코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⁴⁾ 코딩과정에서 애매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필자와 코딩요원이 함께 의견을 교환한 후 분류방법을 결정했다. 분석 항목에 대한 코더 간의 신뢰도 계수는 0.81이었다. 코더 간 신뢰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적들은 0.75~0.80 수준의 신뢰도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레이(Frey)와 보탄(Botan), 크랩스(Kreps)는 0.70을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규정하고 있고,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f)는 코더 간 신뢰도 수준이 0.67~0.80에 있다면 매우 조심스럽지만 신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정나리, 2007 재인용).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시하여 도출된 코더 간의 신뢰도 0.81은 상당한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2000년~2009년까지 10년간 제주지역신문에 기사화된 환경 관련 기사들을 오염, 수자원, 기후·기상, 자연생태계, 개발, 기타의 여섯 가지

4) 코더 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홀스티(Holsti) 신뢰도 계수를 사용하였다(Holsti, 1969).

$$\text{신뢰도} = 2M / (N1 + N2)$$

* M: 2명의 코더 간의 일치한 코딩 항목 수,

N1: 코더1의 코딩 항목 수, N2: 코더2의 코딩 항목 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항목의 연도별 기사의 빈도

구분	→ r _i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v _j	오염	290	284	352	252	70	71	94	67	47	59	1,586
	수자원	430	349	453	328	250	161	237	176	191	184	2,759
	기후·기상	126	153	136	78	89	80	84	133	160	88	1,127
	자연생태계	229	210	345	261	193	195	218	248	232	191	2,322
	개발	386	246	272	275	173	76	120	72	94	126	1,840
	기타	84	67	62	49	19	13	21	21	11	9	356
	계	1,545	1,309	1,620	1,243	794	596	774	717	735	657	9,990

<표 2>를 바탕으로 상대적 이탈지수(RDI)⁵⁾를 산출하기 위해서 r_{ij} 값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RDI값은 <표 3>과 같다. RDI는 각 범주들의 시계열 빈도분포를 종합 값으로 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각 범주들의 개별 빈도분포가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각 범주의 빈도분포가 기준치로부터 상대적 이탈이 되는 크기를 말한다. 따라서 빈도분석과 다른 점은 각 범주의 개별 빈도분포를 하나의 틀 속에 통합시켜 각 범주의 개별 빈도분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조성배 외, 2008).

5) RDI를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정대연,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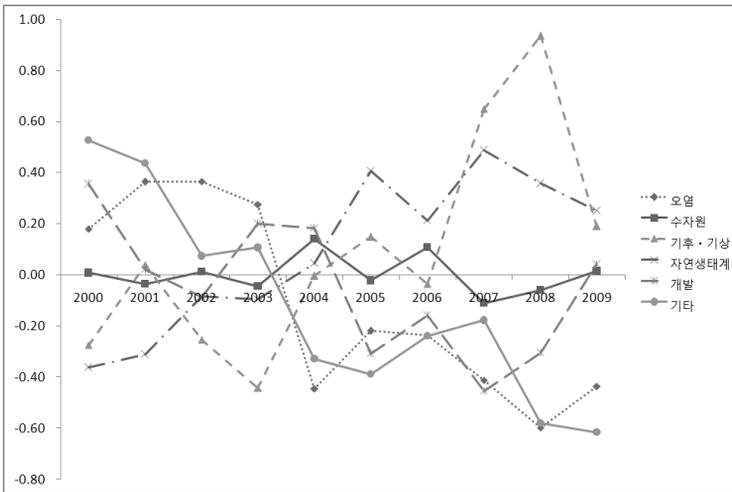
$$RDI = \frac{r_{ij}}{\frac{\sum_i r_{ij}}{n_j}} \times 100$$

r_{ij} = i번째 연도, j번째 열(row)의 값들의 합
 $\sum_i r_{ij}$ = j번째 항목, i번째 행(column)의 값들의 합
 n_j = 항목 j에 대한 i연도의 값 = 총합(grand total)

〈표 3〉 환경 관련 기사의 RDI

$V_j \backslash \Gamma_i$	Γ_1	Γ_2	Γ_3	Γ_4	Γ_5	Γ_6	Γ_7	Γ_8	Γ_9	Γ_{10}
V_1	0.18	0.37	0.37	0.28	-0.44	-0.25	-0.24	-0.41	-0.60	-0.43
V_2	0.01	-0.03	0.01	-0.04	0.14	-0.02	0.11	-0.11	-0.06	0.01
V_3	-0.28	0.04	-0.26	-0.44	-0.01	0.19	-0.04	0.64	0.93	0.19
V_4	-0.36	-0.31	-0.08	-0.10	0.05	0.41	0.21	0.49	0.36	0.25
V_5	0.36	0.02	-0.09	0.20	0.18	-0.31	-0.16	-0.45	-0.31	0.04
V_6	0.53	0.44	0.07	0.11	-0.33	-0.39	-0.24	-0.18	-0.58	-0.62

RDI값을 산출한 결과, 각 연도에 상대적으로 강조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몇몇 항목의 경우 연도별 변화 경향이 뚜렷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RDI는 강도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각 항목의 강도와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나타내면 그것이 곧 각 항목의 상대적 위치가 되는 것이다. RDI의 해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연도별로 각 항목의 강도와 방향에 따른 상대적 위치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각 항목이 분석의 기간 동안 어떠한 강도와 방향을 보이는지 항목의 변동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1〉 환경 관련 기사의 RDI 그래프

1. 연도별 환경 이슈의 경향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제주지역의 환경 관련 기사에 대한 RDI를 보면(〈그림 1〉 참조), 각 연도별 환경 이슈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뚜렷하였다. 2000년에는 개발과 관련된 기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며, 개발과 반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을 제외한 2000년대 초반에 두드러진 현상은 오염이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과 함께 개발이 2000년대 초반에 높게 나타나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각 항목들 간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이후 오염과 개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자연생태계와 기후·기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자연생태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후·기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오염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연생태계와 기후·기상, 개발과 오염의 대비는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6년에 모든 항목의 값들이 0에 가장 근접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각 항목들 간에 상대적 차이가 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상대적 위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후·기상이 분석 기간 중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오염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도 자연생태계와 기후·기상의 값이 여전히 강조되고는 있지만, 그 값은 낮아졌다. 그와 반면 개발과 오염의 RDI값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자연생태계와 기후·기상에 비해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석기간 동안 제주지역의 환경 관련 기사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간은 2004년~2005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2005년을 기점으로 환경 이슈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중요 환경 이슈의 연도별 변화

RDI는 연도별 환경 이슈 변화와 함께 동시에 각각의 환경 이슈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RDI 값의 변화가 일정하거나 증감의 원인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수자원, 오염, 기타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수자원 항목은 모든 연도에서 대체적으로 RDI값이 0에 근접한 값을 보이고 변화 폭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이성으로 인해 수자원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 기사의 빈도는 높지만, 각 연도의 전체 기사에서 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염 항목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강조되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오염 항목에 대한 하위 항목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하위 항목이 불규칙하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 이외에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또한 기타 항목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타 항목으로 설정한 각각의 기사에 대해 질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 하였다.

RDI값의 변동이 크다는 말은 분석 기간 동안에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림 1>에서 변화의 강도와 방향이 눈에 띄는 항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기후기상이고, 다음으로 자연생태계,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요 환경 이슈의 연도별 변화에서는 기후·기상, 자연생태계, 개발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고, 수자원, 오염, 기타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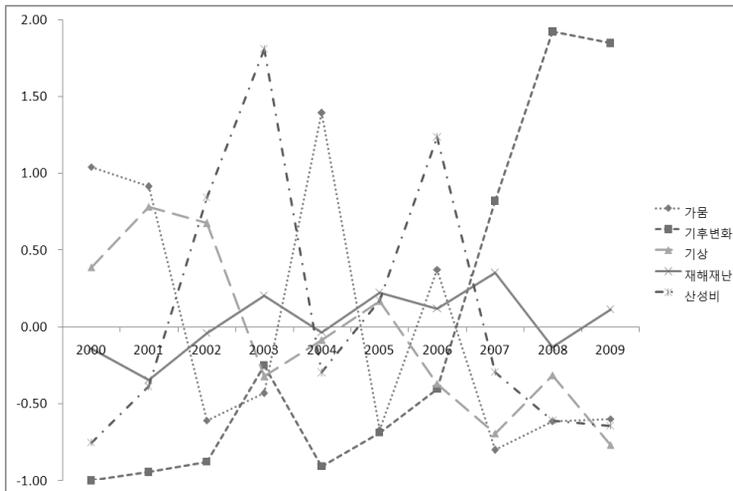
1) 기후·기상

기후·기상 항목이 가장 큰 폭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참조). 2000년에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RDI값을 보이고, 2001년에 RDI값이 약간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가 2003년에 최저의 RDI값을 보인다. 2003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면,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강조되었을 때와 가장 덜 강조되었을 때의 RDI값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기후·기상 항목의 하위 항목에 대해 기사 빈도와 RDI값을 산출하였다. 기후·기상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는 기후 요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상현상으로서의 기상 항목과 기후변화, 재해재난, 가뭄, 산성비 항목으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 <그림 2>와 같다.

<표 4> 기후·기상 항목의 하위 항목 기사 빈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가뭄	29	33	6	5	24	3	13	3	7	4	127
기후변화	0	1	2	7	1	3	6	29	56	30	135
기상	43	67	56	13	20	23	13	10	27	5	277
재해재난	53	49	64	46	42	48	46	88	68	48	552
산성비	1	3	8	7	2	3	6	3	2	1	36
계	126	153	136	78	89	80	84	133	160	88	1,127



<그림 2> 기후·기상 항목의 하위 항목 RDI 그래프

<그림 2>의 기후·기상의 하위 항목 RDI 그래프를 통하여 몇 가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후·기상 항목이 2000년대 후반 들어 강조된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기사의 급격한 증가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DI값을 통해서도 다른 하위 항목에 비해 상당히 강조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관련 기사도 양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지만, 눈에 보일만큼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집중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과 맞물려 제주에서도 2007년부터 기후변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07년 제주도가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 체결을 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⁶⁾ RDI값도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에서 ‘+’로 방향이 전환 되었으며, 그 변화의 강도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재해재난이 2008년에 상대적으로 ‘-’값을 보이긴 했지만, RDI값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기사의 빈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재해재난 기사는 특정 사건·사고와 직결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3년, 2005년, 2007년은 재해재난이 많은 해였으며, 특히 RDI값이 가장 높은 2007년은 제주에 상륙한 태풍 ‘나리’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는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빈도를 가지고 환경 관련 기사의 양적인 측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2007년 하반기 제주지역 최대의 이슈는 태풍 ‘나리’에 의한

6) 2008년 7월 제주도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09)

피해와 피해복구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 기사의 양적인 증가도 충분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 항목도 기후·기상 항목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다가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에는 RDI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나 2009년에는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항목이다.

자연생태계 항목이 200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한 빈도를 산출하였다. 자연생태계의 하위 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이 너무 많고, 해마다 꾸준히 등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인해 RDI값을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몇몇 항목을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자연생태계 항목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생태계 항목의 하위 항목의 빈도를 분석해 보면,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항목이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이다. <표 5>에 나타낸 자연유산, 지질공원 항목의 빈도를 보면, 자연생태계 항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2009년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관련 기사가 17건, “환경수도” 관련 기사가 9건으로 자연생태계 항목에서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의 자연환경정책 관련 기사의 비중은 자연생태계 항목 전체 기사에 비취보았을 때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자연유산, 지질공원 항목의 빈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연유산	0	2	7	6	11	20	53	67	60	26
지질공원	0	0	0	0	0	0	0	6	12	21
계	0	2	7	6	11	20	53	73	72	47
자연생태계 전체빈도	229	210	345	261	193	195	218	248	232	191

따라서 <그림 1>에서 자연생태계 항목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조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세계자연유산 등과 같은 자연환경정책의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3) 개발

개발 항목은 해마다 변동값이 크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02년을 제외하면 2000년대 초반에는 RDI 값이 '+'로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RDI값이 대체적으로 '-'값을 보이면서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발 항목도 자연생태계 항목과 마찬가지로 설정한 하위 항목이 다양하고, 누락되는 해가 많아 RDI값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사의 빈도 위주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큰 사업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개발 관련 사업은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사업', '위터프론트 개발 계획' 등이 있다.

〈표 6〉 개발 항목의 주요 하위 항목 빈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케이블카	110	81	6	17	17	22	6	0	10	32
송악산 개발	72	5	22	5	2	0	0	0	0	0
위터프론트	63	0	0	0	0	0	0	0	0	0
도시계획	64	60	25	47	18	1	1	5	21	23
골프장	6	16	40	49	54	16	26	19	15	4
계	252	162	93	118	91	39	33	24	46	59
개발 전체빈도	386	246	272	275	173	76	120	72	94	126

먼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는 2000년 이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7년을 제외하고 2000년대에 꾸준히 등장하였다. 2005년 6월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에서 한라산의 지질학적 가치와 보호 동·식물 등 식생분포와 경관, 그리고 문화재 등을 집중 조사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종결되는 듯 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빈도에서도 2000년에 110건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에는 케이블카 관련 기사가 한 건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8년에 10건 2009년에 32건으로 최근에 재이슈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은 2000년에 72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가 2005년 이후에는 단 한건도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1999년 12월 30일 남제주리조트 개발에 개발 사업 시행승인이 난 이후 2004년 초까지 개발과 보존에 대한 찬반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04년 12월에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설정되면서 이후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외에 ‘위터프론트 개발

계획'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추진된 대표적인 개발 사업 중 하나이다. 2000년에 63건이 기사화 되어 다루어졌으나 이후에는 한 건의 기사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들 개발의 하위 항목 이외에도 몇 가지 사항을 더 언급할 수 있는데, 먼저 '도시계획'은 2000년에 64건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2003년까지는 상당한 빈도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최근에 들어 도시 경관이 주목받으면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도 2004년에 54건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발 항목은 특정 개발 사업의 진행이 기사의 빈도에 높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몇몇의 개발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던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며, 생활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주제를 지역 신문의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제주 지역신문의 환경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 빈도를 분석하였고, 연도별 환경 이슈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의 환경에 대한 이슈는 연도에 따라 상대적 위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에는 개발과 오염 항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둘의 중요도는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기후·기상과 자연생태계는 200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슈되는 경향을 보인다. 수자원 항목은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서 기사의 빈도는 가장 많았으나 RDI값이 0에 가깝고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 위치의 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기후·기상 항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후반에 다른 항목에 비해 특히 강조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기후·기상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한 기후변화 관련 기사는 2001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증가 폭도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해재난 관련 기사가 기후·기상 항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자연생태계 항목은 기후·기상 항목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보전총회 등과 같이 제주가 자연환경분야 시범도로서 정책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의 자연환경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사의 양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개발 항목은 환경 관련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은 2000년대 초반에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다가 중반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에는 케이블카, 송악산 개발 등 각종 개발관련 사업이 제주도민의 관심을 받는 환경 관심사였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처럼 이슈가 될 만한 개발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 환경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는 2007년 환경부

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범도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계의 각종 자연환경 인증 기구로부터 제주 자연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제주의 자연환경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발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각종 개발 사업은 사업을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에 의한 제주도민들의 의식 형성으로 인해 개발이 포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워터프론트 개발 계획’ 등 2000년대 초반에 많은 개발 사업들이 논란의 중심을 형성하고 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주지역신문의 환경 관련 기사를 내용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의 단위가 단어와 주제에 한정되어 있다. 특정 단어의 출현 여부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각 기사의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또한 각 단어가 기사의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분석의 단위를 계량화하기 위해 출현 여부에 따른 빈도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기사가 전체 신문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지면에 등장 하였는지와, 기사가 지면에서 차지하는 크기, 활자의 크기, 글자의 수 등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기사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아 스트레이트성 기사와 사설 등의 구분을 통한 주요 논점에 대해 분석이 부족하였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들은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영철, 2006, 「지역신문의 문화보도 경향: 제주지역일간지 문화·방송 연예면 기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 4호, pp.5~50.
- 곽정인, 2008, 「192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자녀양육 기사 중 건강 및 위생 관련 내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범, 2000, 「환경문제의 인식과 언론보도의 역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5호, pp.7~47.
- 김선남 · 최용준 · 이영원, 2010, 「지역신문 문화 관련 보도의 심층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0권 1호, pp.50~76.
- 김용재, 2004, 「한국신문의 환경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수, 1994, 「언론의 환경보도 실태와 문제점」, 『환경과 생명』, 제3호, pp.196~204.
- 오강호 · 고영구, 2004, 「신문의 환경 보도 분석과 신문활용교육의 가능성」, 『환경교육』, 17권 1호, pp.67~76.
- 전화수, 2003, 「신문의 환경문제 보도성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나리, 2007, 「국내 언론의 환경 이슈 보도 형태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대연, 1997, 『사회과학방법론사전』, 백의.
- 정대연, 2002, 『환경사회학』, 아카넷.
- 정대연, 2004, 『사회통계학』, 제주대학교출판부.
- 조성배 · 문영기 · 테무라카츠히코, 2008, 「한탄강 댐건설에 따른 갈등흐름 분석과 합의형성의 의미」, 『주거환경』, 제6권 제1호, pp.69~85.
- 차배근 · 오진환 · 정진석 · 이광재 · 임준수 · 신인섭, 2001, 『우리신문 100년』, 현암사.
- 찰스 L. 하퍼, 2010,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사회학』, 정대연 역, 한울아카데미.
- 한균태, 송기인, 2005, 「국내 신문의 환경 이슈 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9-3호, pp.288~324.
- Holsti, O.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 : Addition-Wesley.

Abstract

A content analysis on environmental reporting
of local newspapers of Jeju

Park, Won-Bae* · Kim, Byeong-Mu**

The environment is closely associated with our daily life and we acquire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mainly through the mass media. The mass media provide us not only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but also function surveillance and criticism. Especially, the local newspapers provide more regional trends of environmental issues compared to the mass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trends of environmental issues of Jeju. Therefore, the environmental issues reported on the three different Jeju local newspapers (Halla, Jeju and Jemin) have been selected and analyzed using frequency of each environmental issue. The environmental issues reported from the year of 2000 until 2009 were categorized into water resource, natural ecosystem, climate/weather, pollution, development, and others. These categorized items were measured with frequency and obtained Relative Deviation Index (RDI) value.

In the results, the overall significant changing pattern of the environmental issue was shown during the years of 2004 and 2005. And, only few items including natural ecosystem, climate/weather, and

* Senior Research Fellow, Jeju Development Institute

** Ph.D. program.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were shown consistent changing pattern during the analysis period. However, water resource, which was most frequently reported by the local newspapers showed closely to the RDI value of 0 due to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The variation of each item could be related to the various political issues and changes of environment business plan.

Key Words

environment, local newspaper, environmental reporting, environmental surveillance function, content analysis, relative deviation index

교신 : 박원배 690-0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제주발전연구원 경제환경도시부
(E-mail : gwaterpark@jdi.re.kr 전화 : 064-726-6142)

논문투고일 2010. 11. 19.

심사완료일 2011. 01. 17.

게재확정일 2011. 02. 11.